봉선사, 포교거점 '전법회관' 건립 발원

2월 23일 원만회향 기원법회
문화교육센터 '금곡선원' 추진
연면적2597㎡…4월착공 예정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봉선사가 불교문화 교육센터로 건립 추진중인 전법회관 '금곡선원' 조감도. 사진제공=봉선사

경기북부 지역의 전법과 포교를 견인할 전법회관 건립이 추진된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초격)는 2월 23일 봉선사 전법회관(문화교육센터) '금곡선원' 건립을 발원하고 '불사 원만회향 기원법회 및 탑돌이'를 거행했다.

새롭게 건립될 금곡선원은 남양주 진접읍 금곡리에 위치하며, 향후 남양주시를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포교구심점이자 불교종합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기원법회는 4월 예정된 전법회관 불사 착공식에 앞서 그동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전법회관이 경기북부지역 포교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으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과 총무국장 보관, 재무국장 혜복, 교육국장 법등 스님 등 사중 소임스님들과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 반야심경, 경과보고(김가전 행정실장), 김남명 교구신도회장 인사말, 이도피안 봉선사 신도회장의 발원문, 주지스님 법문, 탑돌이 등으로 진행됐다.

초격 스님은 법문을 통해 "전법회관은 남양주시가 봉선사의 품으로 들어오는 역사적인 전기가 될 것이며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은 역사적인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며 "봉선사가 그동안 시민들에게 위안과 행복을 주는 도량이 되기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새로 건립할 전법회관은 봉선사를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법향을 나누는 구심점이 될 것이며 불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과 도민들이 함께 하는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도피안 봉선사 신도회장은 발원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를 전하게 될 봉선사 전법회관 건립불사가 부처님의 크신 원력으로 사고 없이 원만하게 회향될 수 있도록 봉선사 신도들의 마음과 노력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기원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은 전법회관 건축부지에 임시로 봉안한 탑 주변과 건립부지를 돌며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이번 불사가 원만하게 건립돼 남양주시와 경기북부 포교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발원했다.

봉선사 전법회관 '금곡선원'은 2019년 2월 교구종회에서 '종교부지 매입건'이 결의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같은 해 5월 월초문도운영위원회에서 전법회관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에 걸친 회의와 종단 승인, 작년 하반기 교구종회를 거쳐, 설계 공모를 통해 구체화됐다.

금곡선원은 대지면적 2,160㎡에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2,597㎡로 건립될 예정이며 지하층에는 주차장과 관리실 등이, 지상 1층에는 어린이집과 홍보 및 식당, 카페 등이, 2층에는 교육센터 등 생활문화시설, 3층에는 법당과 수행처인 금곡선원이 조성된다.

송광사 보성 스님 추모다례재 봉행



조계총림 前방장 보성 스님(1928~2019)의 2주기 추모다례제가 봉행됐다.〈사진〉 순천 송광사(주지 자공)는 2월 25일 대웅전에서 방장 현봉 스님, 법흥 스님, 도성 스님(부산 태종사)과 영조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보성 스님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서는 사시불공에 이어 삼귀의례, 반야심경, 대중삼배, 추모입정과 헌향, 헌공, 헌다, 방장 현봉스님의 인사말, 문도대표 인사, 주지스님 인사말, 공지사항 등이 이어졌다.

현봉 스님은 "보성 스님께서는 조계종 전계사가 되시어 계단을 안정시키고, 법계위원장이 되시어 조계종의 법계를 안착하시는데 큰 기여를 하셨다. 또 20년간 조계총림 방장으로써 도량을 안정되게 이끄셨다"고 보성 스님을 회고했다. 스님은 이어 "스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늘 정진하고 스님의 유훈을 받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범일 보성 스님은 1928년 경북 성주에서 출생해, 1945년 해인사에서 구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세 차례의 송광사 주지와 중앙종회 의원, 조계총림 5대 방장, 조계종 원로의원을 역임했다. 지난 2019년 2월 18일 송광사 삼일암에서 세수 92세, 법랍 75년에 입적했다.

한편 송광사 승가대학(대학장 연각)은 2월 25일 제32회 승가대학 졸업식을 갖고 4년간의 수학한 8명의 스님을 배출했다. 같은 날 율학승가대학원도 제22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입춘기도, 자비 나눔으로 회향



입춘기도 회향을 맞아 광주사찰들의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사진〉 광주 지산동 연화사(주지 명신)는 2월 20일 입춘기도 회향을 맞아 신도들이 모은 쌀 24,000kg을 광주불교NGO단체들에게 전달했다.

전달된 쌀은 자비신행회, 백양실버타운, 빛고을나눔나무,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 맑고향기롭게 광주지역,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에 전달돼 각 단체 사업에 사용된다.

명신 스님은 "동참한 신도들의 정성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달 소감을 밝혔다.

무등산 동원사(주지 지장)도 2월 25일 회주 지각 스님, 신도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비 나눔의 쌀' 1,000kg 전달식을 가졌다.

지장 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큰 보시는 아니지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나눔활동 자체에 감사할 뿐"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불교대학 제33회 불교학과 졸업식 봉행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이 '제33회 불교학과 및 제28회 법사과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2월 21일 전북불교대학 4층 큰 법당에서 열린 이날 졸업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졸업생과 전북불교대학 관계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불교학과 33명, 법사과 15명이 1년 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의 영광을 안았다. 1월 31일 시행된 전법사 고시를 통과한 김형중 학인 등 6명은 졸업장과 함께 전법사 자격증을 받았다.

이창구 학장은 "졸업 후에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정진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인석 전북불교대학총동문회장은 "부처님의 동체대비의 사상을 모교와 함께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전북불교대학은 입학식을 4월로 연기했다. 조동제 지사장



소원정사 도계 스님, 불교회관 1억 희사

2월 25일 광주불교연합회 측에



광주불교회관 건립을 위해 소원정사 도계 스님이 1억 여원을 전달했다.〈사진〉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는 2월 25일 사무실에서 도계 스님, 도성 스님, 소운 스님(관음사 주지), 해청 스님(원효사 주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회관 건립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광주불교회관건립 추진위원장이기도 한 도계 스님은 이날 기금을 전달하면서 "회관건립은 광주불교의 숙원사업이자, 미래 광주불교를 만드는 토대가 되는 불사"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소원정사 신도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한 기금은 전체 100구좌(1구좌 108만원) 1억 800만원으로 신도들이 기부한 50구좌, 도계 스님 30구좌와 기타 20구좌로 만들어졌다.

기금을 전달받은 도성 스님은 "큰 원력으로 큰 마음을 내어주신 스님에게 감사하다. 앞으로 좋은 불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선암 '니까야독송 천일정진' 회향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이 '4부 니까야 독송 천일정진 기도결사 회향식'을 봉행했다.〈사진〉 2월 21일 금선암 극락보전에서 봉행된 이날 회향법회는 용인 법륜사 주지 현암 스님, 주상봉 법륜사 신도회장, 안준아 금선암 신도회장, 오종근 전북불교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2018년 3월 입재한 '4부 니까야 독송 천일정진 기도결사'는 당초 12월 19일 회향이었으나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이날 회향식을 진행 했다.

안준아 금선암 신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천일정진 결사기도의 원력을 세우며 시작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회향법회를 봉행하게 되었다"며 "하루도 쉬지 않고 정진하신 주지스님과 신도들의 천일결사 회향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은 "천일정진 기도결사 기간 하루 세 번의 4부 니까야 독송과 오후 불식을 행하며 원력으로 정진해왔다"며 "천일결사를 회향하면서 '금선자비공덕회'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곳을 살피고 금선암이 전법과 나눔을 실천하는 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남해 미륵암, 코로나 종식 용왕대재



코로나 종식을 위한 용왕대재가 봉행됐다.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미륵암(주지 청운)은 2월 21일 미륵암 앞에 소재한 남해 앞바다에서 '신축년 코로나 종식을 위한 용왕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용왕대재 및 방생법회에는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미륵암 주지 청운 스님 외 지역 주민 및 신도 30여명이 동참했다.

이번 용왕대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병마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완치를 발원하고 병원 관계자 및 공무원 등 종사자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자리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모든 국민들의 안위와 평안을 기원하는 법석으로 진행됐다.

미륵암 주지 청운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국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살아가는 불자가 되고 신심으로 참다운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